

1.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AISS의 공식 일정은 공항 픽업부터 시작한다. 외국인 친구들이 타고 오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에서부터 기숙사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준다. 나는 기숙사 팀이어서 외국인 친구들이 방에 잘 찾아 들어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첫 만남이라 어색해서 힘들었지만, 그건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어색해한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점심쯤 도착한 외국인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밥을 먹자고 먼저 제안했고, 그 친구들과 첫날부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소개와 여러가지 안내사항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캠퍼스 투어'를 하는데, 이때는 조끼리 움직이면서 학교의 중요한 장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조는 A,J,O,U 총 4개의 조로 나뉘고 한 조당 한국인 4~5명, 외국인 12명 정도가 배정된다. 한국인중 한명은 조장, 한명은 부조장으로 프로그램 내내 활동하게 된다. 나는 O조의 조장이였기 때문에 캠퍼스 투어를 이끌었다.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식당이 있는곳, 도서관 정도를 소개해주면서 간단하게 끝마쳤다.

2. 제주도 필드트립

본격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수 있는 시간이다. 낮동안에는 제주도의 주요 여행지들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여행 코스는 우리가 경험했던 수학여행 코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엠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녁



에 주어졌던 자유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술게임을 했던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한국식 술 문화에 처음에는 다들 당황스러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재밌어했다. 숙소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서, 밤에 바다 앞에서 다 함께 불꽃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놀기도 했다. 그리고 방에 모여 보드게임도 하고, 심지어 영어로 마피아까지 했다. 제주도 여행을 가기 전에는 나의 짧은 영어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고, 친해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더니 외국

인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느껴졌고, 더 친해질 수 있었다.

3. 수업

총 4개의 수업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최대 2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Korean culture 라는 수업 단 하나만 수강했다. Scott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이며,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문화, 사회 등에 대하여 배운다. 특히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한국과 외국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고, 그 내용에 관하여 각 나라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토론한다. 가벼운 주제일때도 있고, 가끔은 '양성 평등'처럼 꽤나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한다. 토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영어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 각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수업이 끝나갈 때 짬에는 개인 에세이와 팀 발표가 있는데, 주제도 '문화'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수업 하나만 선택한 것이 AISS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담 없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4. KCW & Activity



KCW는 Korean Culture Week의 줄임말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태권도 배우기나 케이팝 댄스 배우기 등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고 수원 화성 견학, 현대 아산 공장 견학, 보령 머드페스티벌, 남산골 한옥마을 체험까지 현장 체험학습도 있다.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큰 추억이 되므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걸 추천한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친구들이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리더로서 친구들을 인솔하고 도움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갈 때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하는 미션(?) 이 있었는데, 리더로서 같은 조 친구들을 이끌고 가야했다. 처음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갈



이 우왕좌왕 하기도하고, 수다도 떨면서 이동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처럼 KCW 이외에도 다양한 Activity가 있다. 조끼리 우리나라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Cook Off day, 모여서 우리나라 영화를 보는 날인 K-movie night 이 있다. 그 외에도 주말에 에버랜드를 가고, 수상레저를 하러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록 외국인 친구들과 공통 분모들이 생기고 그 활동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5. Midsummer Break & 그외 자유시간

활동을 하면서 느낀건 주말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놀러 멀리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친구들이 저녁 6시까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방학이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은 아예 서울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여 서울 투어를 하기도 한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다른 사람들은 제부도로 엠티를 다녀오기도 했다.



수업, KCW나 정해진 활동을 해야하는 날들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다. 그럴때 가만 가 있는 것 보다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시간을 보내는게 좋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 같은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 가는곳에 껴서 자주 놀러다녔다. 외국인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도장 깨듯이 밥을 먹으러 돌아다녔고, 술도 자주 마셨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특히 노래방을 자주 갔다. (외국인 친구들이 노래방을 정말 신기해하기도 하고 좋아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때 아니면 언제 외국인 친구들과 이렇게 놀수 있을까, 하며 아낌없이 쓴 것 같다.

6. 기숙사

나는 국제학사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기숙사 1층 로비에서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바로 앞 벤치에서 맥주 한캔씩 하면서 딥 토킹(?)을 할 때도 있었다. 외국인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즐거웠다. 기숙사에 살면 확실히 외국인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7. AISS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AISS를 선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외국인과 제대로 대화를 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교환학생을 신청했지만 그 전에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주눅들지 않고 더 자신있게 영어를 쓸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정말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로 교환학생을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고 케이

팝, 케이드라마 등등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에게 대해 항상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어지기는 커녕,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들어줘서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게 정말정말 좋을 것 같다. (나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영어 공부를 소홀히 했다.. 살짝 후회하는 점이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와 정말 다른 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다른 점들 보다 비슷한 점들이 훨씬 많았다. 오히려 내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다. 처음엔 서로 호구조사하듯 (?)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친해지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감을 느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막힘 없이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AISS는 영어공부를 위한 정말 큰 자극제가 되었다. 사실 AISS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영어실력이 갑자기 늘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앞서 언급했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라는 목표를 뛰어넘어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넬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만족한다. 게다가 내가 나중에 유럽 여행을 가면 공짜로 가이드를 해준다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까지 얻었다.

정말 돈주고도 살 수 없는, 잊지 못할 여름을 AISS에게 선물받은 느낌이다. ☺

AISS 2015 Photo Essay
Inhoo Koh, Group J, South Korea

1. Field Trip & KCW

AISS 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드 트립과 다양한 한국문화체험의 시간이 많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필드트립, 태권도, 화성행궁, K-pop 춤배우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에버랜드, 보령머드페스티벌,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난타공연 관람, 춘천에서의 래프팅 등등, 한국인인 저에게도 굉장히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 필드 트립은 본격적인 AISS 프로그램의 시작전에 그룹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2박 3일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하며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AISS 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도 제주도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이 충분히 배려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 친구들과 함께한 제주도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 AISS 는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며 저는 그룹 J의 리더를 맡아서 활동하였습니다. 필드 트립과 다양한 KCW 시간에 대부분 그룹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더뿐만 아니라 한국인 팀원들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고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활동 중에 친구들이 가지는 호기심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화 차이가 때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한국의 것들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2. Class _ Global Communication

AISS 는 계절학기 처럼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점 이수를 할 수 없지만 2 학기에 복학하신다면 최대 3 학점 짜리 수업을 2 개, 즉 6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AISS 의 또 다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SS 2015 에서는 과목을 Developing Management Skills, Intro. Computer Programming for Beginners, Global Communication, Korean Culture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 Korean Language 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은 Korean Language 를 제외한 4 개의 수업중 최소 1 개 최대 2 개를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Wisconsin 대학에서 오신 장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공학도인 저와 관련없는 내용들이고 모든 수업과 팀과제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던

친구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도움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학점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소 버거운 과제에 힘들었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지금 Global Communication 의 수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미디어 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얻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국의 교수님들과는 다른 방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업이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수업 분위기를 느끼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Free Time

통학을 하기에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았습지만 수원에 사는게 아니라면 기숙사 신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AISS 에 참여하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숙사를 신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통학생인 저에게도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Free Time 이 매우 많았습니다. 홍대, 인사동, 이태원, 남산, 한강, 강남 등등 가까운 서울 시내를 함께 돌아다닐 수 있으며 멀리 가지 않고 학교 근처, 수원역, 인계동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통학생은 막차 시간전에 가야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몇번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매번 밤을 지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국제학사가 다른 기숙사에 비해 다소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Finally ...

저는 영어권 나라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영어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수업을 같이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한달 반 사이에 영어가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AISS 프로그램은 저에게 많은 발전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더이상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자신없어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여러 문화와 사고 차이를 겪으면서 글로벌 인재로써 필요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orean Culture Workshop 시간과 여러 필드 트립들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써 한국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했지만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KCW 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부끄럽게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고 아름다운 우리의 것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한국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인재의 역량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AISS 를 통해서 세계가 점점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AISS 는 또 하나의 작은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어학 연수를 갈때에 대부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밖에 없지만 AISS 는 15 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아주대학교로 모이기 때문에 교환 학생이나 웬만한 다른 국제 프로그램 못지 않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공부를 하러 나가게 될 때 그 나라에 AISS 친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싱가폴 친구들과 연말에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숙박과 현지 안내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직 4 개월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설레이고 함께할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AISS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외에 다른 활동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절반이 장학금으로 지원이

될지라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습니다만 단연컨데 AISS 는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훌륭한 아주대학교의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개인적으로 다시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으신 학우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Ajo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2015
Jazmin Gomez
University of Nebraska Omaha
Mexico / U.S.

Hello! Hola! Annyeong Haseyo!

My name is Jazmin Gomez, I was born in Mexico and moved to the U.S.A. at a young age. With that kind of background, I am here to tell you about my wonderful experience in AISS 2015.

Dormitory:

Upon arrival at the airport I was able to meet some of the Korean students in the program, who guided me to the bus that I had to take to get to Ajou. Once I got to the dormitory, more Korean students were there to receive me. The International Dormitory is brand new this year, and in all



honesty, it is way better than I had expected. The facilities were great and comfortable, I had access to a kitchen, washer and dryer for a very low cost, bending machine for late night snacks. During my stay at the dorm I share the room with another person, it was something very new for me, since I had never shared a room, but I can say that my stay was great.

Jeju Trip:

The week before classes started, we travel to Jeju!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where not only I got to visit one of the Seven Wonders, but I got meet and make bonds with amazing people. I will never for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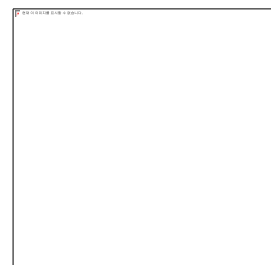


those nights at the beach, enjoying the scenery along with fireworks. Everyone gathered dancing, laughing, playing, and enjoying life. During those three days we were able to stay at a hotel near the seashore and every morning I would wake up and admire the beautiful view. The guides in Jeju were



sympathetic and showed us some beautiful scenery, from walking up a mountain (40 minutes) which was worthy, to going to a black sand beach for canoeing, seeing a gorgeous waterfall, walking a trail full of nature, going inside a cave, horseback riding and eating delicious foods. It was all worth waiting for.

Classes:



I took two classes *Developing Management Skills* with Professor Craig Miller and *Global Communications* with Professor Wong. What I can solely say is that Professor Craig, who has been coming from Canada every summer for six years, is one of the best professors I have had throughout my college life. Not only is he an expert in his field but he is also an expert in understanding students. I was the only one from my college, I did not know anyone, but on my first day, he posted an invitation to go out to eat and give an introductory tour of important places around campus. But, when I say that he understands students I am referring to his class material. He has his own workbook, very inexpensive, that he custom specifically for AISS. The material in both my classes were very interesting to me, and I learn many new concepts and perspectives that I know I would not have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in my home university.



KWC:

Every Wednesday we had this class, in which I was able to enjoy many trips and activities. Such as going to a Fortress, learning Taekwondo, KPop, going to a Mud Festival, Nanta show and a traditional village. This was a mandatory class, which there would not be a reason why to miss, it was always entertaining.



mend

IT!



miss, it
For this
class I
recom
to just
ENJOY



Trips and Free Time:

Explore, Do NOT be afraid of exploring or getting lost, getting to know various parts of Seoul and Korea takes courage and an adventurous soul. AISS provides a couple of optional trips during Saturday's such as Everland, Mud



Festival, and Kayaking. And they give us a Mid Summer break in which we are free to make our own plans. This is the time where you can explore and make strong bonds with friends. I spent three amazing nights in Seoul, and got to know the nightlife as is. And if you are lucky you may be staying at a guesthouse that is next to an Idol group dormitory, unexpectedly I ended next to INFINITE dormitory.



Friends:

This is the best part of all, people are a precious thing in everyone's life, at least for me it is, I have gotten to know amazing people, who I became so close with. Many Korean students

were there to help me at all times, and many other students had a warm heart to welcome me. We share memories, we took risks together, tried many new things (spicy food) and learn about each others cultures. I will never forget those who came into my heart.





Various activities took place during my stay in Korea, many nights to remember, friends that will stay in heart, and experiences that can only take place in Korea. And adventurous soul has grown inside me, I do not say goodbye to Korea or my International friends, I rather say:
See you later,
whether it is Korea, USA, Mexico, or anywhere in the world.

